

위중증 환자 급증에 '렉키로나' 확대 공급... 병상 부족 해결

질병청, 항체치료제 공급 늘려
약 72개의 가동 병상 감소 효과
승인 치료제 중 가장 높은 사용률



셀트리온 렉키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첫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가 확대 공급된다. 위중증 환자 급증으로 인한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셀트리온은 질병관리청의 항체치료제 확대 공급 결정에 따라, 기존 지역별 거점 치료의료기관 중심으로 공급되던 렉키로나를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등 전국 코로나19 치료 현장에 확대 공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

작하면서 늘어나는 중증 환자의 증가세 감소를 위해 항체치료제를 적극 사용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에 공급 대상에 추가된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항체치료제의 최적 투여 대상인 초기 확진자들이 집중

적으로 수용되기 때문에 이들 기관에 대한 렉키로나 공급 및 조기 투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셀트리온은 렉키로나의 공급 확대로 투여 대상이 늘어나면 코로나19 확진자의 중증 이환율 감소는 물론, 전담병원 병상 가동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루 3000명 확진자 발생시, 이번 공급 확대로 렉키로나의 투약 대상이 확진자의 30%(약 900명)까지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약 72명의 중증 환자를 줄여 일일기준 약 72개의 가동 병상 감소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 주로 계산했을 경우 500개 이상의 병상 가동을 줄여 급격히 늘어나는 의료부담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렉키로나의 확대 공급은 기존과 변

함없이 자회사 셀트리온제약이 맡으며, 치료기관으로부터 공급신청 접수를 받아 공급하게 된다.

렉키로나는 올해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 전국 지정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에서 투약을 시작하면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와 확산을 막는 항체 치료제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 기준 11월 18일까지 전국 130개 병원, 2만3781명 환자에게 투여돼 국내에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 중 가장 높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셀트리온이 국내 렉키로나 시판 후 330명을 대상으로 한 델타변이 유효성 분석 결과에서도 델타변이와 비델타변이 간 렉키로나주의 효과와 안전성 측

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해당 환자의 중환자실 입원은 1% 이하로 매우 낮게 보고됐으며, 사망 사례도 없어 올해 초부터 확산된 델타 변이 대응에도 국내 유일한 경증 및 중등증 치료제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 온 것으로 분석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이후 신종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렉키로나 공급 확대가 위중증 이환 감소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위주의 공급을 늘리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환영하며 셀트리온도 렉키로나가 코로나19 치료에 적극 사용될 수 있도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에스티팜, 생산시설 대폭 확충 CDMO 기업 세계 1위 노린다

올리고핵산치료제 시장 선점
환경친화적 시설로 건설 예정



에스티팜 반월공장

에스티팜이 시설 증설로 글로벌 1위 올리고핵산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도약에 박차를 가한다.

에스티팜은 원료의약품 CDMO 전문 회사로서 급성장하는 올리고핵산치료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제2 올리고동(제2 올리고핵산치료제 원료 공장) 신축 및 생산설비 증설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2024년 3분기까지 1차 800원, 2025년 말까지 2차 700억원 등 총 15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경기도 안산 반월공장 부지에 5~6층 높이의 제2 올리고동을 신축하고 4~6개의 대형 생산 라인을 추가할 계획이다.

제2 올리고동은 복수의 독립된 일괄 생산라인에서 병렬 교차생산을 통해 생산기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또한 유기용매를 회수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해 원가절감과 함께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건설될 예정이다. 앞서 에스티팜은 2018년 반월공장 부지에 4층 높이의 제1 올리고동을 신축하고, 2층에 연간 250~750kg의 올리고핵산치료제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증설했다. 2020년 8월과 10월에는 두차례에 걸쳐 제1 올리고동의 3, 4층에 추가 증설을 결정했다. 내년 하반기 증설이 완료되면 생산능력은 시화공장을 포함해 연간 300~900kg에서 1.1~3.2t으로 확대된다. 특히, 2025년 말 제2 올리고동이 완공되면 올리고핵산치료제 생산능력은 연간 2.3~7t으로 현재 대비 7.7배 늘어난다. /이세경 기자

독자기술 보유 바이오기업, 복지부장관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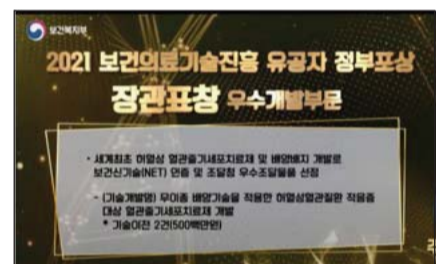
보건산업진흥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독자기술을 보유하고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바이오기업들이 '2021 보건산업진흥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유공 포상'에서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았다.

24일 유스바이오글로벌에 따르면 23~24일 열린 '2021 보건산업 성과교류회 개막식'에서 회사는 '2021 보건산업진흥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유공 포상' 단체부문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을 받았다. 동시에 유승호 유스바이오글로벌 대표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유스바이오글로벌은 전세계 각광을 받고 있는 첨단재생의료분야 중 허혈성 혈관질환에 효과적인 혈관재생기술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하여 먼저 생물학적 활성 증진 및 고도화를 위한 배양 배지의 사업화를 앞두고 있고, 혈관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올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기술



(NET) 인증 및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았으며, 혁신기업 국가대표1000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11월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일보에서 주최한 디지털 이노베이션 바이오 테크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유스바이오글로벌 관계자는 "특허출원 및 등록 등 지식재산권이 15건이 넘는 정도로 활발한 연구 및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 코리안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도 선정돼 미국 식품의약품(FDA) 인허가 준비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코코힐리 '플레이 컬러스' 클래스 모집

프리미엄 어린이 화장품 코코힐리(cocoheali)가 '플레이 컬러스' 클래스의 겨울 학기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코코힐리가 진행하는 '플레이 컬러스' 클래스는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 클래스를 비롯해 홈플러스 랜선 클래스로도 확장돼 홈플러스 클래스로도 운영되고, 노보텔 엠베서더 호텔과 함께 코코힐리 키즈 스위트룸 투숙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플레이 컬러스' 클래스는 다양한 오감 놀이와 코코힐리 노래 등 아이들과 다채로운 활동으로 채워져 있다.

또한, 포브스가 선정한 2021 대한민국 파워 유튜버 한유라와 함께 클래스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유라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1세대 한국인 유튜버다.

홈플러스와 백화점에서 진행되는 이번 겨울 학기 클래스는 12월부터 시작되며 겨울 방학을 코코힐리와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 크리스마스 파티 플래닝 클래스로 ▲나만의 파티 준비하기 ▲크리스마스 패밀리 토퍼만들기 ▲나만의 석고 방향제 만들기 등으로 구성됐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롯데리아, 내달부터 제품 가격 인상

품목별 평균 200원 올라

롯데리아의 햄버거 세트메뉴 가격이 9000원대까지 상향조정됨에 따라 주 고객층인 학생과 직장인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GRS가 운영하는 롯데리아가 오는 12월 1일부터 제품 판매가격을 평균 4.1%, 인상 조정한다.

조정되는 가격은 버거류 16종, 세트류 17종, 치킨류 12종, 디저트류 8종, 드링크류 10종 메뉴에 대해 적용되며 제품별 조정 인상 가격은 품목별 평균 200원 인상 수준이다.

대표 단품 메뉴인 불고기버거와 새우버거는 3900원에서 4100원, 세트메뉴는 5900원에서 6200원으로 조정되며, 국내산 한우를 원료로 한 한우불고기버거는 단품 7200원에서 7500원 세트메뉴는 8900원에서 92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판매가 조정은 ▲최저 임금 상승 ▲해외 물류 대란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물류 수수료 및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 등 대내외 제반 비용 증가 등 경제적 비용 증가에 따른 인상 조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하이트제로0.00', 3분기 매출 104% 쉼춤

무알콜 시장 확대 속도

'하이트제로0.00(사진)'이 지난 2월 리뉴얼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국내 대표 무알콜 맥주맛 음료 하이트제로0.00의 올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이트제로0.00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50% 증가했고, 3분기 매출 성장률은 104%로 상승 폭이 급격히 확대됐다. 회사는 10월 매출도 전년 동월 대비 214% 성장하는 등 4분기 20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이 예상돼 올해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알콜을 맥주맛 음료 시장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하이트제로0.00의 급성장에 힘입어 국내외 주요 맥주 브랜드가 잇따라 시장에 가세하면서 시장 확



대에 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 추산하는 지난해 국내 무알콜 맥주 시장 규모는 약 150억원으로, 올해는 200억원 규모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트제로0.00 매출 성장의 첫 번째 요인으로는 알코올 함유량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시중 10개 이상 국내외 브랜드 중 대부분은 1% 미만의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이다. 주량이 약한 사람은 물론 임산부 등 소량의 알코올에도 민감한 소비자는 음용 시 주의를 요한다.

두 번째는 국내 NAB 제품 중 유일하게 칼로리가 제로라는 점이다. 최근 국내 판매 중인 무알콜 맥주는 한 캔 당 많게는 95kcal에서 13.8kcal까지 분포되어 있다.

/신원선 기자

폴바셋 겨울 시즌 한정 메뉴 출시

스페셜티 커피 전문 브랜드 폴 바셋은 25일부터 겨울 시즌 한정 메뉴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폴 바셋이 선보이는 겨울 음료는 추운 몸과 마음을 녹여주고, 긴장감을 완화시켜주는 '호지차라떼'와 '애플 시나몬 티', 리프레싱에 도움이 되는 '토마토 바질 에이드'다.

연말을 맞아 폴 바셋은 파티에 어울리는 케이크 사전 예약 판매도 진행한다. 케이크는 크라운오더 앱과 네이버 주문하기를 통해 25일부터 12월 8일까지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